아동총회 전북 지역대회 개최

익산시, 만 10~17세 지역 아동 대표… 사회문제 토론 해결책 모색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보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북도 지역대회'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 교육관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만 10~17세 지역 아동 대표들이 모여 관련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책 참여의 장으로, 지난 2004년 시작돼 올해 18회를 맞았다.

이날 열린 지역대회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뛰노는 우리들'을 주제로 익산시 제3대 아동의회 의원 13명이 참여해 아이들 스스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지역대회 토론회를 통해 선발된 1명은 전북을 대표해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 출전한다.

시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관해 왔던 지역대회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최했다.

시는 이 대회를 통해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와 참여율 향상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해왔던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전북에서 유일하게 개최하게 됐다"며 "지역대회를 통해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정책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나아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15일간 국회, 국제청소년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zoom, Youtube)등을 통해 개최된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년 6월까지 과태료·이행보증금 등 면제

군산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군산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로 '지하수법' 제7조 제1항(허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신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와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해 신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모든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하수과(☎063-454-5455)로 문의하길 바란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해신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착한가게 발굴 원스톱

군산시 해신동은 지난 10일부터 주민센터 앞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비대면 홍보부스 운영과 함께 우리동네 착한가게를 찾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캠페인은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진행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대면상담의 한계를 넘어 소외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과 이 사업에 힘이 되어줄 착한가게를 찾기 위해 기획됐다.

홍보부스에는 긴급복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주민복지안내서 등의 안내와 함께 건강꾸러미 홍보용품이 비치됐으며,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동네 착한가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든든한 개인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헌현 해신동장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찾아주시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며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지원, 착한가게 발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수일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 방역안전감시단 활동을 강화했다.

"강력한 멈춤에 동참 바란다"

군산 큰들방역단, 대야 전통시장 등 방역 캠페인 실시

군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 방역안전감시단 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11일 전통시장인 대야5일장에서 대야면 방역안전 감시단인 '큰들방역단'이 중심이 되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대야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큰들방역단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역확산방지 캠페인 등을 펼치며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내 가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날 큰들방역단은 대야 전통시장 주출입구 3개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5일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무더위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인과 이용객에게 안전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을 했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가족 및 지인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 방문과 우리 지역으로 타지역 가족과 지인을 초청하는 일은 자제해 달라는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캠페인에 참여한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동안만이라도 가족모임 등 소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강력한 멈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 나운2동, 대은기업 식품·생활용품 기탁

군산시 나운2동은 (유)대은기업이 11일 행복나눔 공유곳간에 식품 및 생활용품(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유)대은기업은 오식도동에 위치한 운송관련 서비스 업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대은 대표는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나운2동의 공유곳간과 같은 나눔 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성관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공유곳간 사업에 나눔을 실천하는 (유)대은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나운2동을 만들기 위해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선제검사 권고

군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백종현 보건소장은 지난 10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타지역, 외지인 등과 접촉한 경우 증상유무에 관련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학생, 교사·강사, 근로자 등 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2학기 개강을 맞아 입국을 시작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검사 및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입국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에도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누적 58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0대와 30대, 50대 각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 3000번(익산 580번)은 20대다.

이 확진자는 전북 2988번(김제 237번)과 지난 7일 대구지역을 함께 방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확진자인 50대는 전북 3007번(익산 581번)으로 분류됐다.

이 확진자는 서울 서초구 확진자 가족 접촉자로 통보받아 진단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30대인 전북 2012번(익산 582번)은 외국인으로 지난 8일 서울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이 확진자는 무증상 상태로 출국 전 진단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이동동선 파악과 함께 접촉자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기자